

뱃! But,

등장인물

아리

은광

엄마

새엄마, 새아빠

원장님

보육원 아이1,2,3

장소: 보육원

최예슬

1장: 보육원

엄마는 아이를 보면서 “나중에 봐”라고 하고 아이는 “응...”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사라질 때까지, 구두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을 때까지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.

암전

아리: 안녕..?

보육원 아이1: 안녕!

보육원 아이2: 선생님 애는 누구예요?

보육원 아이3: 근데 애가 들고 있는 인형 진짜 꼬질꼬질해! 키득키득

선생님: 자자 그럼 이제 새로 온 친구 놀리지 말고 사이 좋게 잘 지내고!

보육원 아이들: ...

선생님: 어허 대답 안 할 거야!

보육원 아이들: 네에......

아이들이 끼리끼리 놀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아이. 여자아이는 처음 왔을 때 들고 있었던 곰 인형을 들고 있었다. 아이들은 그 곰들이 인형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.

보육원 아이1: 아, 이게 뭐야? 아 으 드러워!

보육원 아이2: 야 패스패스패스

보육원 아이3: 에베베베벵베베베

아이: 훌쩍... 훌쩍...

아리는 고개를 떨군 채 그냥 묵묵히 있다. 울음소리 같은 아리의 콧물은 계속해서 나온다. 콧물을 마시는 소리가 울음소리 같긴 했지만 아리의 작은 손에는 주먹이 꼭 쥐어져 있다. 아리를 괴롭히던 무리가 사라지자 아이들이 버리고 간 곰 인형을 들고 다가오는 한 아이.

은광: 안녕?

고개를 들어서 인사한 사람을 바라보는 아이.

은광: 잡아(아이에게 손을 내민다. 그리고 친구의 품에는 곰 인형이 있다.)

아리: (흠칫 놀랐지만 그렇지 않은 척) 고마워.

은광: (옆에 앉으며) 넌 이름이 뭐야?

아리: 난 아리야.

은광: 우와!

아리: 넌?

은광: 나? 난 이름이 없어... 내 이름이 뭔지 몰라.. 아! 네가 지어줄래?

아리: 음... 내가?

은광: 응 너가!

아리: 그럼..은광! 어때

은광: 우와!! 이빠! 나랑 완전히 잘 어울리잖아? 고마워! 근데 이름이 무슨 뜻이야? 왜 은광이야?

아리: 우리 아빠가 이름이었는데.

은광: 그런데 너희 아빠 이름이면 네 주변에 은광이 두

명이잖아. 그럼 어떻게 구별해?

아리: 아빠는 이제 내 주변에 없으니까 괜찮아.

은광: 왜?

아리: 돌아가셨거든.

은광: 아... 그렇구나..

아이: 은광아.

은광: 미안... 아! 이름 지어줘서 고마워! 진짜 신기해.
다른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신기한
일이구나.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알아채고 알아
봐 준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구나. 신기해.

은광은 처음 등장부터 지금까지 곰돌이인 형을 들고 있다.

은광: 근데 너 왜 혼자 있어? 친구는 없어? 엄마아빠는?

아리: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혼자야. 애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.

2장(암전): 건물

새엄마: (서랍 뒤에 숨어서 속삭이듯) 저 애예요. 저 애!

새아빠: 저 애가 당신 마음을 쭉 빼앗은 녀석이구먼?

새엄마: 여보! 녀석이라니! 숙녀한테 실례예요. 그리고 저렇게 귀여운 아이한테 녀석이 뭐예요. 아 니, 글썄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인데 어쩜 저리 자립성이 좋은지 자기 혼자 척척 할

일을 다 해요. 그리고 완전히 의젓한 거 있죠?
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... 너무 귀여운 거 있
죠?

새아빠: 보통 8살이면 다 자기 할 거 하는데..

새엄마: (등짝을 때린 후 노려본다)

새아빠: 아휴 알았어요. 알았어. 어차피 입양을 생각하
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아이 할 같이
살자고요.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급하게 결정한
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. 이렇게 급하게 결
정해도 괜찮겠어요?

새엄마: 아마도요?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난 저
애가 좀 불쌍해요. 보육원에서 왕따를 당하는
데다가 원장님한테 사정을 들으니까 엄마가 아
기를 키우기에는 좀 빠듯해서 아기를 맡긴 것
같던데 저 애가 여기 12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한
번도 안 찾아왔어요.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
불쌍하고 무엇보다 너무 사랑스러워서.. 아이가
상처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. 따뜻하게 안아주고
싶어요.

새아빠: 역시 우리 여부네. 하하 그럼 입양해서 우리가
따뜻하게 안아주며 사랑으로 키워보자고요,

새엄마: 여보! 아니 자기 (하트) 내가 사랑하는 거 알
죠?

새아빠: 이럴 때만! 흥!

새엄마: 아이

새엄마: (원장실 문을 두드리며) 원장님~ 원장님~

원장님: (문을 열며)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.

새엄마: 네 안녕하세요.

원장님: 어쩐 일로..?

새엄마: 일단 이거 좀 드셔보세요. 요즘 같은 더위에는
몸도 챙겨가면서 일해야 해요~

원장님: 아이고 사모님 감사드려요. 아우 진짜 항상 와
서 남들 머뭇거리는 일 서슴없이 해주시고 매
번 와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까기 하니 정
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.

새엄마: 감사해요. 그래서 말인데요. 제가 입양을 하려
고 하는데요

원장님: 아 입양이요?

새엄마: 네

원장님: 누구 입양하시게요?

새엄마: 아리요.

원장님: 저희야 그 친구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산
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데... 요, 어, 음(입소리
로) 그런데요. 보통 아이를 입양할 때 10살 아
이를 입양하진 않습니다. 10살이면 새 부모님
들이 자신을 낳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
고 있을뿐더러 심지어 저 친구는 자신의 부모
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. 그래서 많은 아이가
혼란이 와요.

3장(암전): 원장실

아있었다. 아리와 눈이 마주치자 중년의 여자가 주인공에게 활짝 웃어보인다. 햇살같은 웃음이었다.

원장님: 자 인사해.

아리: 안녕하세요.

새엄마: 안녕?

새아빠: 안녕.

새엄마: 우와 귀여운 친구랑 같이 다니는구나. 아줌마한테도 소개시켜주겠니?

아리: 은광이에요.

은광: 안녕하세요.

새엄마: (곰돌이 인형에게 인사하고 은광의 말을 끊으며)안녕? 만나서 반갑구나.

이때 은광이는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있다. 그런데 엄마는 은광이가 안고 있는 곰돌이 인형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아리는 은광의 얼굴을 보면서 말한다.

아리: 그런데 전 입양 안 갈 건데요. 우리 엄마가 나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요.

원장: 어? 너 그건 어떻게 알았어?

아리: 누가 알려줬어요. 그런데 아무튼 전 입양 안 갈 거예요. 여기에서 엄마 기다리기로 했거든요.

원장: 앗 그래도..00아.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라도 하는게 어떠니?

아리: ... 싫어요.

원장: 응? 정말 좋은 분이셔.

아리: 저희 엄마도 좋은 사람이거든요?

원장: 그런데 너희 엄마가 허락을 하시...

새엄마: (말을 끊으며)아 그러면.... 그래. 엄마랑 한번
얘기를 해보겠니?

아리: 엄마랑요? (놀란듯한 동그란 눈동자를 강조하며
눈을 부릅뜨다.)

새엄마: 응

**그렇게 아이는 떠나가고 원장은 새부모님들을 보면서
괜찮겠냐는 표정으로 쳐다본다.**

새아빠: 괜찮아요. 집사람이 그쪽 엄마랑도 연락이 되
어서 이야기를 맞췄다고 합니다. 오히려 그쪽
엄마는 아이를 입양해주는 것에 고마워하던데
요.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우리 집사람의 입양
의지가 더 굳어진 것 같지 뵙니까. 하하

아리: 엄마랑 만날 수 있어!!

은광: 진짜 행복해보이네.

아리: 그럼! 엄마랑 안만난지 진짜 오래됐거든.

은광: 근데 엄마는 왜 너를 찾아오지 않아? 나 여기에
서 지낸지 반년동안 너네 부모님이 누군지 보
지도 못했어.

아리: 우리 부모님...?

은광: 응.

아리: 내가 잘못했거든.

은광: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를 찾아오지도 않아?

아리: 나는 엄마한테 있는 것만으로 짐이야. 나는 계속

먹어야 하고 필요한것도 많아. 그래서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해.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닌거 알아.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야.

은광: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! 너는 그냥 어린애야. 도움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! 이 세상에 그런 이유가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. 그러니까 너도 그런 생각 하지도 마!

아리: 그래도... 엄마가 힘들어하는 건..

은광: (말을 끊으며) 너 때문에 아니야!!

아리: 알았어... 그리고 고마워.

4장: 휴게실

똑똑똑(노트소리)

아리가 모습을 드러낸다. 엄마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원형 탁자에서 아리는 엄마를 기다린다. 친구와 함께 말이다. 아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 익숙한 듯 계속해서 기다린다. 그리고 등장하는 엄마. 엄마의 웃은 다림질을 해 뺏뺏하지만, 다림질에도 가릴 수 없는 허름한 웃이었다.

엄마: (웃으며 등장)

아리: 엄마! 왔어요?

엄마: 그래. 뭐 좀 먹을까?

아리: 팬찮아요.

엄마: (오랜만의 만남이 어색한 듯 주변을 둘러본다. 그리고 반가운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는 은광이가 들고 있는 곰 인형에 인사한다) 어머, 이 친구는 우리 아리한테 소개해줬던 친구네?

은광: 안녕하세요.

엄마: (은광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광의 인사에 반응하지 않고 말한다) 이 친구는 변함없이 이쁘네. 그런데 무슨 일이야?

아리: 아..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.

엄마: 응? 뭔데 그래?

아리: 제가 있는 보육원에서 누가 저를 입양하고 싶어요. 그런데 제가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엄마를 만나고 오라고 해서 엄마 만나러 왔죠.

엄마: 그랬구나. 보육원은 어때? 엄마가 한 번도 못 가봤네..

아리: 음.. 좋아요! 엄마가 소개해준 이 친구랑 같이 있어서 이 친구랑 놀고 수다도 떨고 하고 있어요!

엄마: (조심스럽게) 진짜 좋아? 다른 친구들은?

아리: 다른 친구들도 좋아요! 다들 잘해줘요. 그러니까 엄마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.

엄마: 그래.. (급하게) 나 이제 가봐야겠다.

엄마는 휴게실에서 나와 문 앞에서 새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한다.

엄마: (문 앞에 서서)…….만났어요.

새엄마: 어때요? 어이가 많이 힘들어하나요?

엄마: 사실 아직 이야기를 못 했어요.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보육원에서 왕따도 당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 때문에 좋다고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애 앞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.

새엄마: 많이 힘드셨겠네요.

엄마: 그래도 다음에는 꼭 말할게요.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니깐. 아이… 잘 부탁드려요. 저랑 한 약속 잊지 말아줘요.

5장: 방

아리: 히히히

은광: 기분 좋아 보이네.

아리: 그럼!! 엄마랑 만나고 왔잖아.

은광: 너는 엄마가 왜 좋아?

아리: 엄마? 그냥 엄마니까.

은광: 그러니까, 왜?

아리: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… 굳이 말하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? 나를 낳아준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. 무엇보다 나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잖아. 엄마가 나에게 하는

모든 결정은 날 위한 결정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.

은광: 그럼 그런 부모님이 만약에 너를 입양 보내기를 원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?

아리: 응? 그럴 리가 없어.

은광: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

아리: 그럴 리가 없다니까?

은광: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!!

아리: ...만약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.

은광: 그럼 넌 입양 갈 거야?

아리: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건 결국 날 위한 일일 거야.

원장님: 아리아, 아리아.

아리: (크게) 네!! . 가자.

원장님: 엄마가 또 만나고 싶다고 하네? 어떻게 할래. 만날래?

아리: 네!

6장: 휴게실

아리: 엄마! 오셨어요?

엄마: 응.

아리: 엄마. 요즘 엄마랑 많이 만나서 좋아요. 히히

엄마: ㅎㅎ(아이랑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고 바나나우

유만 만지작거린다.)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.

아리: 뭔데요?

엄마: 입양... 가볼래?

아리: 네?

엄마: 하아... 거짓말은 못 하겠다. 그때 원장님한테 들었어. 너 보육원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. 아이들이 너 왕따시키고 괴롭힌다고.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. 온종일 일하다가 끝나면 아주 늦은 저녁이라서 가보지도 못하고 항상 그렇게 있었는데 그곳에서 네가 힘들다는 거 듣고 너무 힘들었어. 그러니까 입양 가자. 입양 가서 행복하게 살아.

아리: 싫어요!! 나 기다릴 수 있어!!

엄마: 엄마가 데리러 못 갈 것 같아.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..

엄마는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.

아리는 울고 있다.

울고 있는 우리에게 새엄마가 다가온다.

새엄마: 왜 이렇게 울고 있어?

아리: 저리 가세요!

새엄마: 아리야. 아줌마 한 번만 봐 볼래?

아리: (눈물이 고인 눈으로 힐끔 쳐다본다)

새엄마: 사실 있지 엄마가 지금 아프셔. 엄마가 아주 아픈데 그거 때문에 아주 나중에도 아리가 보육원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까 봐 엄마는 걱정하시는 거야. 그래서 입양을 허락해 주셨어.

아리: 엄마... 아파요?

새엄마: 응...

아리: 그럼 내가 아줌마랑 같이 살면 엄마 더 이상 안 아파요?

새엄마: 그렇진 않아. 그런데 엄마가 마음 편히 수술받을 수 있데. 그리고 그 수술비도 아줌마가 줄 거고.

아리: 그럼 내가 아줌마랑 같이 살면 엄마는 행복해요?

새엄마: 사랑하는 딸을 못 보니까 많이 힘들겠지? 그러니까 가끔 엄마 보고 싶을 때 엄마 보러 가면 되지. 엄마가 지금은 우리 어린이를 돌보지 못해서 그래. 엄마가 수술이 잘 못 되면 너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.

아리: ...(눈물 푹푹) 그럼 나 엄마 만날래요.

전화로 엄마를 불러준 새엄마. 그리고 엄마는 달려왔다.

아리: 엄마!! (달려가서 안긴다)

엄마: 우리 딸사랑해. 우리 딸 많이 사랑해.

아리: 나두..

엄마: 아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리야 고마워. 오늘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얼른 가서 쉬어.

은광: 근데 너는 왜 엄마랑 그냥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끝내? 더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?

아리: 응.. 나도 처음엔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.

은광: 왜?

아리: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면 충분한 것 같았어. 그 말 한마디에 엄마에 대한 사랑과 엄마의 말대로 살 거라는 결심과 약속이랑 무엇보다 난 계속 영원히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.

은광: 신기하다.. 근데 또 슬프겠네...

아리: 응.....

은광: (화제를 전환하려는 듯 밝게) 새 부모님은 어때?

아리: 내일 만나서 같이 살 때 필요한 거 사기로 했어.

은광: 새 부모님은 좋아?

아리: 잘 모르겠어. 하지만 엄마가 같이 살라고 한 사람들이니까 예의 없게 굴면 안 돼!

은광: 싫지만은 않은 것 같던데. 너 저번에 그분들이랑 만나고 난 다음 일기장에 (연기하듯) ‘햇살 같은 웃음이었다. 포근했다. 엄마랑 같이 산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다.’ 라고 적어놨던데?

아리: 그건 그렇지만... 너 이썬! 너 이 자식 그거 어떻게 봤어! 이놈의 자식!

친구: 헤헤 뭐 어때 우리는 운명의 단짝인걸. 네가 적지 않았어도 난 알았을 거야. 암튼 난 그 사람들 괜찮은 것 같던데? 너랑 같이 살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암. 암튼 만나봐봐. 너도 그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.

7장: 백화점

아침이 밝고 아이는 새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. 그런데 아이가 가게 된 곳은 다름이 아닌 백화점이었다.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아이의 침대를 보기 시작했다.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디자인 등을 일일이 물어보며 그렇게 그들은 쇼핑한다.

아리: 전 아무거나 좋아요.

새엄마: 아이, 정말. 세상에 아무거나고 건 없다니까. 아무거나 골라봐.

아리: 방금...

새엄마: (당황스러운 표정으로) ㅎㅎ

아리: 아무거나고 건 없다고...

이렇게 말하고는 새엄마와 아이는 서로 눈이 마주치고는 함박웃음을 짓는다.

아리: 전 파란색이 좋아요.

새아빠: 오! 진짜? 나도! 난 파란색이 그렇게 좋더라. 아, 초록색도.

아리: 어? 저도요. (신기했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는 표정으로)

새아빠: 우리 완전 자연의 색을 참 좋아하네? 다음에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뒤덮여있는 곳으로 갈까?

아리: 그게 어디예요?

새아빠: 바다랑 산!

아리: 우와! 좋아요!! 진짜 좋아요!! (오랜만에 흥분하며)

아리의 흥분한 모습에 새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있다가 금새 흐뭇한 표정으로 아리를 바라본다.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리.

아리: 나 왔어!

은광: 오 왔어?

아리: 응! 오늘도 진짜 좋았어. 그분들이랑 저번에 바다랑 산에 가자고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?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갔다 온 거 있지!!!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이뻐서 진짜 깜짝 놀랐어. 나는 파란색이 한 3가지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바다에는 파란색이 정말 다양하고 너무 이쁘게 많고 또 있지 산에서는 분명 같은 초록인데 완전 다른 분위기를 뽐내고 있는 나무들 덕분에 정신을 잃을 뻔했지 뭐야.

은광: 진짜? 이제 그분들이 좋나 보네?

아리: 사실 조금 좋아. 엄마와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처음으로 내 방도 가져봤다? 나 그분들이랑 만나면서 내가 10살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. 아직 안 해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랑받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 10살 말이야. 나는 벌써 10살이 아니라 이제 겨우 10살이잖아? 어리광부릴 수 있는 어른이 나에게 필요했던 거였어. 나는 보호받고 자라야 하는 어린이이니까. 그래서 그분들이랑 잘살아보려고. 항상 불안정하게 흔들렸던 나에게 이제 안정이 찾아온 느낌이야. 이게 행복일까? 만약 행복이라면 계속 내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.

은광: 잘됐네

아리: 응! 근데 잠 와?

은광: 응?

아리: 계속 말이 느려져서.

은광: 아, 응... 나 잘래. 잘 있어.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한 생각만 하고 이제 행복해야 해. 난 항상 너의 행복을 응원할 거다! 내일도 화이팅!

아리: 뭐야 어디 갈 것처럼. 뭐 암튼 내일 이사 가니까 폭 자~

8장: 보육원(암전)

아리: 야, 얼른 일어나!!

은광: 왜

아리: 야, 너 요즘 진짜 왜 그래. 저번엔 항상 날 깨워 줬으면서. 어디 아파?

은광: 아니.

아리: 그럼 나 오늘 그분들 만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.

은광: 알겠어.

아리: 그래서 있지 내가 어제 진짜 너무 좋았었다고 말했었나?

은광: 몰라

아리: 흠... 아니야 내가 말했었어! 그래서 내가 또

너한테 화냈었잖아.

은광: 그랬었나

아리: 응! 이제 가자! 그분들이 기다리셔.

아리는 새 부모님을 만나서 짐을 옮기고 있다. 그리고 차에 올라타서 새 부모님과 이야기를 한다.

새엄마: 그 친구는 항상 같이 있네?

아리: 하하 네! 이 친구는 항상 저랑 함께였어요.

새아빠: 왜 과거형이야?

아이: (아련한 슬픔) 함께였는데 이제는 떠났어요. 저의 행복을 빌어주면서. 새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고 훌쩍 떠나버렸어요. 그래서 쪼끔 슬프지만, (아자를 하며) 괜찮아요! 이제 엄마, 아빠가 있으니까요. 지금 진짜진짜 행복하거든요. 은광이가 질투할 만큼.

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인형을 드디어 품에서 내려놓는 아리.